

강운태 시장, 선거 공약 이행 전국 1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 5기 전국 시도지사 평가

86% 실행·재정 확보 99.83%...최고 등급

고용률도 소폭 상승...전남·전북은 C등급

강운태 광주시장이 민선 5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시민과의 약속인 선거 공약을 가장 잘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실시된 민선 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사항 이행평가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이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강 시장은 공약완료도, 목표달성, 주민소통 등 3개 분야를 합산한 평균 총점에서 90점 이상을 받았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공약집행 이행률은 총 90개 공약중 80개를 완료한 86%로, 전국 1위에 올랐으며, 전국 평균(76%)보다 10%포인트나 높았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도 5조1836억원 중 5조1750억원을 확

보한 99.83%로, 전국 평균인 53.29%를 압도했다.

특히 강 시장은 유엔 지정 인권도시 추진, 광주 공동체 위탁회의 구성, 시민참여형 비엔날레 만들기 등의 공약 이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는 또 민선 4기와 5기 고용률 및 실업률 비교에서도 민선 4기보다 고용률은 0.6% 증가한 57.0%, 실업률은 -0.9% 낮아진 2.9%를 기록했다. 이는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는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전남도는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풍력설비 전용산단 조성 등의 사업보류, F1대회 적자 등으로 C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전남과 함께 C등급을 받은 전북도의 경우 총 56개 공약 중 38개를 완료. 전국 평균보다 낮은 68%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으며,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공약 등을 수행하지 못해 낙제점을 받았다.

이번 공약이행 평가는 45명의 전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작년 말 기준 민선 5기 공약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공약완료도 ▲목표달

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총 5개 분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실시한 것이다. 민선 지자체장 4년 임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약 이행률이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2010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4년 임기 동안 힘없이 달려왔는데, 이처럼 좋은 평가까지 얻게 됐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미완료된 공약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광주 등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주민 참여율을 높여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역 비전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이 돋보였으며, 낮은 평가 지역은 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서 공약을 남발한 곳”이라며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모든 광역단체장들이 한 장짜리 공약 가게부와 대차대조표를 내놓은 뒤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784조...빛더미 한국

경제규모의 3배...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한국의 가계·기업·정부의 빛은 전체 경제 규모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非)금융 민간기업, 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783조9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새 기준으로 집계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428조3000억원)에 대한 부채 총액 비율도 264.9%에 달했다.

GDP대비 부채 총액 비율은 2004년 202.7%에서 2006년 222.5%, 2007년 229.8% 등으로 상승하다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254.4%로 훌쩍 뛰었고 2012년은 260%선으로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정부, 기업, 가계를 가리지 않고 경제 주체들의 빛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우선 작년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는 1223조1000억원으로 그 10년 전인 2003년의 2.3배로 늘었다. 비금융법인(민간기업+공기업·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 부채도 206조4000억원으로, 10년 전의 2.2배로 불었다. 특히, 정부(중앙+지방)의 부채는 496조6000억원에 달해 3.4배로 늘었다. 이 기간 새 기준 명목 GDP는 810조9000억원에서 1428조3000억원으로 7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 분석실장은 이와 관련 “성장률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적정 시점에서 부채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부채는 재정정책을 강화하면서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 집행을 효율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원뉴스

전남 동백나무, 가려움증 특효

산림연구소, 말라세지아균 박멸 효과 확인

전남 남해안에 자생하는 난대수종인 동백나무가 가려움증 등 항균성 질환 개선에 효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2일 동백나무의 산업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어린잎, 목은잎, 가지, 꽃, 종자를 시기별로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도움을 주는 페놀, 카로티노이드, 알카로이드 등 식물화합물과 유리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놀 등 식물화합물은 녹차잎에 비해 80배 이상 들어있다.

특히 어린 동백잎에서는 머리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말라세지아균(Malassezia pachydermatis)을 죽이는 강력한 항균력을 확인했다.

말라세지아균은 두피 피부염 원인균이며, 고양이 등 애완동물에게 중이염과 피부병을 일으키는 곰팡이성 병원균이다.

또 동백잎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글루탐산(glutamic acid),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필수아미노산인 트레오닌(threonine), 면역계 강화에 도움을 주는 알라닌(alanine) 등이 풍부했다.

동백잎 추출물에서는 식중독균(Bacillus cereus)과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높은 항균력을 확인했다.

상록활엽수인 동백나무는 완도와 진도 등 전남지역 9425ha에서 자라고 있다. 전국 면적의 67%를 차지한다.

전남은 많은 양의 동백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열매만 일부 식용으로 활용되는 등 원료로 쓰는 등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동백나무의 잎과 꽃, 열매 등에서 식품과 의약 조성물을 추출하고 개발하는 등 산업화에 나선 상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철가방 들고 100일간 31개국 여행 박승현·장우석씨



박승현(오른쪽)·장우석씨가 지난해 12월 알프스 산맥에서 캠핑을 마친 후 오토바이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빈손으로 떠난 유럽 일주 양손 가득 꿈 채워왔어요”

“복지 선진국으로 유명한 핀란드와 독일에서 만난 청년들도 우리와 비슷한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만난 대학생들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취업난에 시달리고,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청년들이 88만원 세대라고 부르며 위축되고 좌절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꿈 배달부’라고 부르는 박승현(23)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0여일 동안 ‘철가방’을 들고 31개국을 여행했다. 아일랜드에서 시작해 프랑스-네덜란드-핀란드-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그리스-세르비아-이탈리아-바티칸시국-스페인-포르투갈에 이르는 긴 여정이었다.

그는 아일랜드 어학연수 중 만나 의기투합한 장우석(28)씨와 125cc종교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해 전 유럽을 누볐다.

순천 출신으로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2학년인 박씨가 세계여행을 준비한 것은 군 제대 전 일흔한 권의 책 때문이다.

“2012년 12월 해병대 제대를 앞두고 219일 동안 26유로만 들고 무전여행에 성공한 류시형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정도로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행 비용과 영어를 걱정하기보다 당장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편도 티켓만 들고 아일랜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렇게 떠난 아일랜드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부산 출신 장씨는 20대가 지나기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일랜드로 왔다.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첫 목격지인 영국으로 출발했다. 두 사람은 세계인들의 꿈

서 태어난 친구에게 물었더니 ‘평화’라고 답했어. 어린 시절 고향에서 매일 아침 폭격기 굉음을 들으며 자란 친구는 그 무엇보다 평화가 소중하다고 말했어. 벨기에 한 대학에서는 캠퍼스 정원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정원 운동을 하는 친구를 만났어.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열정적으로 일하고 행복해 하는 그를 보며 많은 걸 배웠어. 한국 학생들이 학업과 취

“핀란드·독일 청년들도 한국처럼 취업 고민

소박한 꿈·작은 행복 찾는 친구들 보며 반성”

을 담기 위한 철가방을 들고 125cc 오토바이에 올랐다.

“우리 사회는 오토바이를 타고 철가방으로 음식 배달하는 청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자금을 벌기 위해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저 역시도 수백만원 대출 빚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꿈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철가방 안에 꿈을 담아오자는 생각으로 출발했어.”

그렇게 출발한 여행에서 그들이 만난 꿈은 무척 다양했다.

“한국 학생들에게 꿈을 물으면 직업이나 물질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달랐어요. 코스보에

업에만 바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됐지요.”

지난 1월 귀국한 후 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들은 지인들에게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현실이 힘들어 꿈을 꿀 시간조차 없다고 말하지만 가슴에 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꼭 거창한 것만 꿈으로 정하지 않아도 돼요. ‘평화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처럼 아주 평범해 보이는 것이라도 가슴 속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지닌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거든요. 청년들이 매순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용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j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